

“수능 위주 선발 적정 비율은 40%”

대입개편 시민참여단 의견 보니 학생부 전형 확대 반대 오늘 교육부 권고안 발표

대입개편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비율은 4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6일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절한 비율에 대해 시민참여단 452명(490명 중 무응답 제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평균(응답구간별 중간값의 가중평균)을 냈더니 39.623%였다”고 설명했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에 대해 공론조사를 한 공론화위원회는 개편 시나리오 4가지에 대한 지지도 외에도 수능과 학교 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조사했다.

일반대학이 전체 선발 인원 가운데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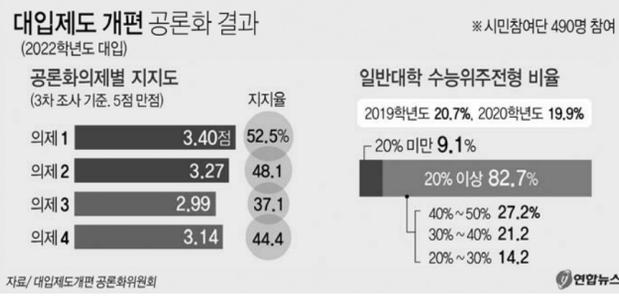
정도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은 20% 수준인 현행보다 높은 비율을 택했다.

구간별로 보면 ‘40% 이상 5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조사 대상의 27.2%로 가장 많았다. ‘30% 이상 40% 미만’이 21.2%로 뒤를 이었고, ‘20% 이상 30% 미만’(14.2%), ‘50% 이상 60% 미만’(12.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는 ‘30% 이상 40% 미만’ 구간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3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40% 이상 50% 미만’ 구간의 응답률이 높았다.

구간별 중간값에 응답률을 고려해 가중평균을 내면 약 39.6%가 된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의견 조사 결과 4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시나리오1(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과 시나리오2(수능 절대평가)가 각각 평점 1, 2위를 기록했지만, 두 선택지의 지



지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나리오1의 지지도가 높지만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은 45%라는 수치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결론은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을 더 늘리지 말라는 것, 수능 전

형을 늘리되 시나리오1처럼 일률적으로 45% 이상으로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일 교육부에 이송할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권고안 등을 토대로 이달 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교육부 대학평가 한계’ 오늘 교수단체 세미나

광주·전남 교수단체들이 모여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제안한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는 7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8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과 지역 대학육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최현주 순천대 교수(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가 발제자로 나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학개혁의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민교협 조선대 분회)는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에서 소외된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고영진 광주대 교수(광주대 전 교수협의회 회장), 정영일 동강대 교수(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명연 상지대 교수(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나선다.

주최 측은 “교육부의 자율개선대학 선정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대학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대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조선대학교가 최근 개최한 '융복합교육포럼'에서 김성현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빅데이터 시대, 수업 교재 달라져야 한다”

조선대 ‘융복합교육포럼’

조선대 ‘호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문화복지 브릿지(BRIDGE) 인재양성 특성화사업단(단장 허유성)’은 최근 ‘융복합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학생성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 분석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빅데이터 시대, 교육연구에서 텍스트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존 교육포럼 영역을 다양한 전공분야 및 현장 연계 분야로 확대, 교수의 융합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

련됐다.

이번 포럼 강연자인 김성현 교수는 새로운 통계방법에 능통한 전문가로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텍스트 분석 방법인 Topic analysis(Topic Modeling-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강연 뿐 만 아니라 실제 활용에 관한 실습도 진행하는 전문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자유전공학부, 독일어문화학과, 특수교육과, 교육학과, 화학교육과, 간호학과, 영어교육과, 영문과 등 소속의 교수 및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대학원생

25명이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에 선정되어 지난 2014년 7월에 출범한 브릿지인재 양성사업단은 ‘배움과 삶, 나눔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기부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기부대상 ▲교육기부 우수기관 ▲교육기부 유공기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거나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수상하여 2관왕을 기록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고교생 교육정책 의견 직접 내세요

도교육청 17일까지 접수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마감은 이달 17일 낮 12시까지. 공모 분야는 학생자치활동, 학교의사결정참여,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의 청소년 참여, 학생노동 및 인권, 수업개선, 학생복지, 입시제도 등 7개 분야다.

공모는 학교 또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차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 30편을 선정하며 2차 심사(제안 발표)에서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다음달 13일 여수 유캐슬호텔에서 열리는 제안 마당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상 1팀, 혁신상 9팀, 창의상 20팀에게는 교육감상이 주어진다. 제안마당 참가자 및 참석자 전원에게는 학생생활기록부 체험활동 등록 가능하다. 문의 전남교육정책연구소 061-260-5653.

공모는 학교 또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호남대-中 요동대, 미래차 인재 함께 키운다

2020년부터 교육 공동진행

호남대학교 프라임사업본부(본부장 정영기)는 최근 중국 요동대학에서 두 대학 간 미래자동차분야의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약에는 정영기 본부장, 손완이 국제교류본부장, 김철수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진춘화 경영학과 교수와 요동대학 천치판 부총장, 리잉원 국제교류처장, 류광다 기계전자공학대학 부학장, 왕디 기계설계제조 및 자동화학과 학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두 대학은 2020년도부터 양 대학이 진행할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와 학술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요동대학은 호남대학교의 프라임사업과 미래자동차공학부의 미래자동차 전문 인력양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동대학의 가장 큰 규모의 학과인 기계설계제조자동화학과의 인재양성 방향과 교육과정을 미래자동차분야로 새로이 개편한 후, 2019년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한중 대학이 공동으로 인력양성을 하기로 제안했다.

정영기 본부장은 “프라임사업을 통해 얻어진 미래자동차 인력양성의 성과를 양교 간에 공유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학술교류가 성공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강대 자원봉사 참여학생들 광주시장 표창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명 지킴이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사진> 동강대 응급구조과(학과장 정국영)는 최근 분관 1층 장원홀에서 표창장 전달식을 갖고 최길순 교수에게 광주시장상을 수여했다.

또 응급구조과 재학생 오승익·이도일·송금성에게 광주 동부소방서장상을, 문영은·황주희·김승우씨 등 3명에게는 광주서부소방서장상을 전달했다.

이날 표창장은 지난 5월 광주DJ센터에서 열린 ‘2018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에 동강대 응급구조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기여한 공으로 전달됐다.

동강대 응급구조과는 지난 2015년부터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에 참여해 지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또 2015년 광주남구와 협약을 맺고 초·중·고생을 비롯해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며, 재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도 키우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